

맞춤형 청소년안전망 강화

익산시, 위기청소년 실태조사·정책개발 연구용역 보고

익산시가 지역 위기 청소년에게 맞는 실질적 정책 수립을 강화해 든든한 청소년 안전망 역할을 수행한다.

시는 23일 익산시 위기청소년의 실태조사와 청소년 안전망 정책개발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최종보고회는 오임선 익산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시의원, 청소년 기관·단체, 교육복지사, 청소년 등 20여 명이 참석해 용역수행기관의 결과보고, 질의응답, 참석자의견교환 순서로 진행됐다.

지난 3월 착수한 이번 연구 용역은 지역 내 위기청소년의 실태 및 현황을

조사·분석해 올해부터 운영 중인 지자체 청소년 안전망 선도사업을 효과적으로 운영·발전시키고자 마련됐다.

이번 용역에서는 △익산시 위기청소년 실태조사 및 분석 △위기청소년 정책환경 및 사례분석 △청소년 및 청소년 전문가 심층면담 조사 결과 보고 △익산시 위기청소년 안전망을 위한 정책 제언 등에 대한 연구가 이뤄졌다.

이를 위해 익산 거주 초등학교 4학년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청소년 900명을 대상으로 가정, 학업, 지역사회에서의 위험요인과 위기경험, 위기청소년

이 겪는 어려움 희망하는 지원 서비스 등 31개 항목을 바탕으로 한 설문지 조사를 실시했다.

설문 결과, 설문 대상 청소년 중 19.6%가 위기(가능)청소년으로 나타났다.

부모 간 갈등과 무단결석, 가정 내 학대 경험은 위기 청소년이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주된 어려움으로는 적성에 맞는 진로 찾기, 하고 싶은 의욕 없음,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꼽았다.

또한 설문 참가 청소년들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제공, 건강검진 및 각종 질병에 대한 치료, 안전한 주변 환경 조성 등이 매우 필요하다고 답했다. /익산=이재훈 기자



군산대학교는 23일 군산시청 소회의실에서 군장대학교, 군산시의회 관계자들과 지역과 상생하는 교육혁신 방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역 체류형 인재양성 프로젝트’

군산대-군장대-시의회, 지역과 상생하는 교육혁신 방안 간담회

군산대학교는 23일 군산시청 소회의실에서 군장대학교, 군산시의회 관계자들과 지역과 상생하는 교육혁신 방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군산대학교 교무처장, 기획처장 입학처장, 산학협력단장, 군장대학교의 교학처장, 기획관리처장, 산학협력처장, 군산시의회 김영일 의장 및 의원들이 참석하였다.

지역과 상생하는 교육혁신 방안으로 이날 논의된 내용은 군산대학교가 22년도 상반기에 준비한 사업 현황 및 결과 지역 체류형 인재양성 프로젝트 등이다.

특히 군산대학교가 준비 중인 지역 체류형 인재양성 프로젝트는 지역 내 타대학 및 주요 기관과의 협업을 준비하고 있어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교육혁신 방안으로서 많은 효과가 있을 것

으로 보인다.

군산대학교가 진행 중인 ‘지역 체류형 인재양성 프로젝트’는 지식융합형 현장 중심 채용연계 인력양성 사업으로 전기자동차/부품 분야에서 군산시, 군장대학교, 전북산학융합원과의 코-업을 계획 중이다.

지자체의 재정지원을 통해 대학이 현장중심형 인재를 양성하며, 참여기관의 기업지원 및 네트워크를 통해 지역에서 인재를 채용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으로써, 지식학이 동반성장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군산대학교는 앞으로도 꾸준히 지역과 상생하는 교육혁신 방안들을 발굴하여 지역사회와의 협업을 이끌어 내며, 지역과의 동반성장을 위한 기반을 탄탄하게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군산=김판곤 기자

국민의힘 전북도당, 군산시 국가예산 확보 ‘한 뜻’

군산항 특송화물 통관장 설치사업 등 예산정책 현장방문 실시

군산시는 23일 정운천 국회의원(국민의힘 전북도당위원장)과 주요예산 확보를 위한 현장회의를 실시했다.

이날 현장방문에는 정운천 국민의힘 전북도당위원장, 군산시 부시장, 군산세관장 등이 참석해 군산항 특송화물 통관장 설치사업, 군산-여청도-연도 항로분기 사업 등 2023년 군산시 주요 국가예산 사업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군산항 특송화물 통관장 설치사업은 전자상거래의 발달로 처리물량이 매년 급증하고 있음에도 서해안권에서는 인천항과 평택항에서만 통관이 가능해, 군산항 입항 물량이 다시 인천으로 운송되는 비효율을 개선하고자 대 중국 직항로가 개설된 군산항에 통관장을 설치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다.



군산시는 23일 정운천 국회의원(국민의힘 전북도당위원장)과 주요예산 확보를 위한 현장회의를 실시했다.

시는 군산항 특송화물 통관장 설치사업의 기대효과와 당위성에 대해 피력하고, 사업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국회 심의과정에서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군산=김판곤 기자

익산시, 악취측정 시스템 도입 ‘시민 정주여건 개선’

익산시는 악취측정 시스템을 도입해 시민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있다.

23일 시에 따르면 익산시는 악취 발원지를 역추적하는 시스템을 운영하는 한편 축산 농가 스스로 이를 측정하는 ICT 시스템을 도입했다.

시는 6억3000만원을 투입해 악취 측정차를 도입했다. 악취 측정차는 발원지를 역추적해 사업장을 지도·점검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악취측정차는 기상측정기와 악취포집 분석기가 등이 탑재되어 있어

악취와 지정악취물질 22종 외 1600여종의 화학물질 분석이 가능하다.

시는 악취 행정에 대한 주민 민족도 향상을 위해 8월 시민과 함께하는 악취 측정차 탑승데이를 시범 운영했다.

이 프로그램은 악취 포집과 분석 과정을 공개해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진행됐다.

시는 시민 여론을 바탕으로 오는 9월 1일부터 신청을 받아 매월 2회 이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시는 축산 악취 발생을 차단하기 위

해 측정 시스템을 도입했다.

33개 농가에 ICT 장비를 설치, 관리 체계를 마련했으며 이를 통해 농가 관리 기준 초과 시 즉시 축산환경관리원 악취관제센터와 연계돼 농가가 직접 악취를 차단할 수 있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악취관리시스템을 운영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 우리시 도시 이미지를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훈 기자

군산시, 2023년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신청 접수

군산시는 오는 9월 7일까지 2023년도 민간단체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지원대상은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보조금 지출에 관한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이 되어있고,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 시에서 권장하는 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등이며, △보조사업자는 군산시에 소재하고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단체로서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어야 한다.

다만 △동일 단체의 유사·중복 사업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사업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 등은 보

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된 사업은 △사업계획, △사업의 공공성과 타당성, △파급효과와 주민수혜도 △보조사업자의 자부담 능력 등을 기준으로 사업부서 실무검토와 군산시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3년도 본예산안에 반영되며, 12월 예산이 확정(시의회 의결)되면, 내년 1월부터 지방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민간단체는 군산시 홈페이지 (<https://www.gunsan.gakr/>)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고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단체소개서 등을 작성해 군산시청 해당 사업 관련 부서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군산=김판곤 기자

지역 소식통

군산시, 2022 을지연습 실제훈련 실시

군산시는 23일 오후 2시 30분 국가주요시설인 군산항 5부두에서 ‘2022 을지연습 실제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실제훈련은 군산항에 드론테러로 해경경비함정 및 일부 선석 파괴와 화학오염에 따른 피해발생 상황 대비 민관경界的 효율적 대응 연습을 위해 실시했다.

실제훈련에는 육군 35사단 전북경찰청 경찰특공대, 군산경찰서, 군산해양경찰서, 군산소방서, 익산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해양환경공단, 군산지방해양수산청, 등 250여명이 참여했다.

헬기, 해경경비함정, 소방차, 제독차, 드론 제밍기 등 40대의 장비가 동원됐으며 훈련 참가자들은 상황발생에 따른 유관기관 전파, 인명구조, 화재진압, 드론 제밍, 폭발물 제거, 적 특수부대원 섬멸 등 각 분야별 세부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했다.

김임준 군산시장장은 “이번 훈련은 드론 테러의 위험성이 날로 커져가는 상황에서 상황 발생시 신속 대응하기 위한 민관군경간 협조체계를 재정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전했다. /군산=김판곤 기자

군산시, 본예산 편성 위한 직원 역량강화 교육 실시

군산시는 23일 2023년도 본예산 편성을 위한 직원 교육을 실시하고 내년도 예산편성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

이번 교육은 △올해 8월부터 새롭게 도입된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사용방법, △2023년도 재정운영 기본방향, △본예산 편성 주요일정, △예산편성 운영기준 주요 개정사항, △지방보조금 관리 및 집행실무 등 예산 실무에 대한 직원들의 전문능력 향상을 제고하기 위해 실시했다.

시는 코로나19 재확산 우려 및 인플레이션 가속화 등으로 인해 국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상황으로 내년도 재정여건은 불투명하나, 민생경제 회복 및 차세대 성장동력 확보를 목표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군산=김판곤 기자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

호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